



배 포 일	2026. 5. 21(목)	매 수	3매
생 산 부 서	미래전략처 미래도로부 부장 윤미정, 차장 김재국 (☎ 054-811-3331)		
배 포 부 서	홍보처 언론홍보부 부장 배강민, 차장 김영민 (☎ 054-811-1331)		
배 포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한국도로공사, ‘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’ 총회 개최 도로·교통 분야 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논의

- ▶ 도로 SOC 투자평가제도 개선 성과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
- ▶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일정에 맞춰 정부와 협의 후 지침 반영 예정

□ 한국도로공사(사장 직무대행 이상재)는 21일(목) 도로 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‘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(이하 포럼)’ 총회를 개최했다.

○ 포럼은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, 타당성평가 등 투자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논리 개발과 주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, 손의영(서울시립대 명예교수)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, 대한교통학회 등이 참여해 작년 9월에 출범했다.

□ 출범 이후, 정부 예타 제도 개선 TF 지원,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, 성과발표회, 도로·교통 분야 학술대회 세션 개최 등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왔으며, 이를 통해 교통시설 사업 타당성 평가 시 활용되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(국토교통부, '26. 4.)에도 기여했다.

-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① 도로 시설물의 내구연한, 운영사례 등을 고려해 분석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, ② 교통 사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 비용을 반영하고 차량 내구연한 증가를 감안해 차량 운행비용 등 편익 산출 방법을 현실화했으며, ③공사비 단가를 최신 설계 사례에 맞게 조정했다.

□ 이번 총회에는 국토교통부, 한국개발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고, 주요 도로·교통분야 전문가로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, 조한선 한국도로학회장, 정성봉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장 등이 함께했다.

- △교통수요 및 사회적 편익 △지역 균형발전 및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도로 이용자 통행패턴 변화를 반영한 교통 수요예측 및 통행 시간가치 세분화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, 교통사업 편익 산정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. 논의 결과는 향후 정부 예타 제도 개편 일정에 맞춰 관련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□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“이번 총회를 발판으로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을 반영한 도로 SOC 투자평가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”며, “향후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타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: 관련 사진 2부. 끝.



21일(목), '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' 총회에서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(왼쪽에서 다섯 번째),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(왼쪽에서 네 번째)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
21일(목), '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' 총회에서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.